

필연적 연결과 경험주의

이 재 호

【국문요약】 이 논문에서 필자는 법칙, 인과, 설명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흄적 이론들이 반흄적 이론들에 비해서 경험론 친화적이라는 철학계에 널리 퍼진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논증한다. 필자의 논증에 따르면, 우리가 매우 강한 형태의 경험론 친화성 기준을 사용할 경우 흄적 이론들과 반흄적 이론들은 같은 정도로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으며, 반대로 우리가 충분히 너그러운 형태의 경험론 친화성 기준을 사용할 경우 흄적 이론들보다 반흄적 이론들이 더 경험론 친화적이게 된다. 이를 통해 필자는 합리적인 경험론자라면 흄적 이론들보다 반흄적 이론들을 선호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주요어】 필연적 연결, 경험주의, 흄주의, 반흄주의

오늘날 법칙, 인과, 설명과 관련한 형이상학적 논쟁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흄주의자들과 반흄주의자들 사이에서의 논쟁일 것이다. 흄주의자들은 법칙, 인과, 설명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필연적 연결에도 호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우리 세계 안에 필연적 연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법칙, 인과 관계, 그리고 설명적 관계와 같은 것이 어떤 원초적인 법칙적 또는 양상적 개념도 사용되지 않으면서 환원적으로 분석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서 반흄주의자들은 이런 개념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필연적 연결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우리 세계 안에 어떤 종류의 필연적 연결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 논쟁은 다양한 차원과 전선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이 논쟁의 배후에는 거의 예외없이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사이의 오래된 대립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대부분의 흄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이론, 즉 ‘흄적 이론들’이 경험주의 정신에 친화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이유에서 선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¹⁾ 이것은 필연적 연결에 대한 철학적 논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일견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논쟁이 철학의 전면에 등장한 계기가 흄의 인과에 대한 분석이었으며, 흄의 필연적 연결에 대한 공격은 잘 알려져 있듯이 그의 경험주의 철학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앞으로 결론 부분에서 언급하겠지만 흄의 필연적 연결에 대한 공격과 오늘날 흄주의자들의 필연적 연결에 대한 공격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오늘날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흄의 경험론적 정신이 오늘날의 흄주의자들이 옹호하는 다양한 ‘흄적 이

1) 예를 들어 캐럴은 “법칙의 문제에 대한 경험주의의 영향은 법칙성에 대한 적절하게 환원적 정의에 대한 현재의 요구로 스스로를 드러내었다”(Carroll, 1994, p. 13)라고 말한다. 캐럴의 이 주장이 법칙 뿐만 아니라 인과와 설명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론들’에 계승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흄적 이론들이 경험주의 친화적인 이론인 반면 반흄적 이론들은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은 이론이라는 철학계에 널리 퍼져 있는 생각이 사실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필자의 주장을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우리가 경험론 친화성의 기준을 매우 강하게 잡는다면 반흄적 이론들은 물론 흄적 이론들도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다. 반면에 우리가 이 기준을 충분히 너그럽게 잡는다면, 세간의 평가와는 달리, 흄주의가 아니라 반흄주의가 보다 경험론 친화적인 이론인 것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경험론 친화성의 기준을 잡던 흄적 이론들이 반흄적 이론들보다 더 경험론 친화적인 이론이라는 주장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로부터 필자는 우리가 경험론의 정신을 고수하고자 한다면 흄주의가 아니라 반흄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도발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흄주의와 반흄주의의 대립은 법칙, 인과, 설명 모두에서 나타나지만 필자는 이 논문에서 주로 설명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그러나 이 세 주제가 친밀하게 얽혀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필자가 흄적 설명이론에 대해서 하는 주장은 약간의 필요한 변형을 거치면 흄적 법칙 이론이나 흄적 인과 이론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²⁾

1. 설명 이론의 역사와 흄적 설명 이론³⁾

서양철학의 역사에서 체계적인 설명 이론의 역사는 아리스토텔레

2) 이 세 주제가 왜 서로 얽혀 있을 수밖에 없는지는 이재호(2020)를 볼 것.

3) 이 절의 내용은 필자의 이재호(2014)의 1절에서의 논의에 많은 부분 기반하고 있음.

스로부터 시작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이론은 흔히 '4원인론'으로 알려진 이론이다.⁴⁾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실체가 갖는 형이상학적 성격에 기반해서 대상을 4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모라브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비록 다양한 aitia가 실체의 설명뿐만 아니라 실체의 측면들을 다루지만(cover) 이 네 개의 유형의 주된 구분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의 본성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다고 가정하는 것은 그럴듯하다. 이런 분석을 위해서는 (전형적인) 아리스토텔레스적 실체에 대한 다음의 성격 규정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자기 결정된 목적을 향해 스스로를 움직이는 고정된 구조를 갖는 요소들의 집합. 이 성격 규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요소(구성 요소), 구조, 운동의 작용, 그리고 목적이다. 이들은 대략적으로 잘 알려진 4원인에 해당된다.⁵⁾

우리의 현재의 맥락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 이론이 갖는 중요한 특징은 이 이론이 설명적 관계의 분석에 있어서 목적과 같이 관찰될 수 없는 어떤 요소에 호소한다는 것이다. 루벤은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J. S. 밀에 이르기까지 주목할만한 설명 이론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이 갖는 이런 특징이 중세를 거치는 동안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반대로 근대 이후에는 설명 개념 자체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루벤은 다음과 같이 근대 경험주의의 영향과 설명 이론의 부재를 연결시킨다.

4)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인(aitia)'이 오늘날의 '원인(cause)'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때문에(because)'에 해당하는 말이며 따라서 사원인론은 인과 이론이 아니라 설명 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의 아리스토텔레스 학자들 대부분이 찬성한다. (Freeland, 1991, p. 49)

5) Julius M. E. Moravcsik, (1974), p. 5.

홉스와 베이컨으로부터 로크를 거쳐 버클리 와 흄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 경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은 개념이나 관념들에 대한 철학적 거부감이 증가해왔다. 다양한 경험주의적 철학자들이 실체, 물질, 본질 또는 형상, 자아 그리고 인과 등의 개념에 의심과 유보의 감점을 표현했다. 내가 아는 한 어느 누구도 설명 개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에 경도된 설명에 대한 스콜라적인 전통이 어떻게 이들로 하여금 만약 설명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만들었을지는 쉽게 이해된다. (Ruben, 1990, p. 111)

설명 개념에 대한 경험주의적 거부감은 J. S. 밀에 이르러서 비로소 해소된다. 그의 설명에 대한 생각은 다음의 구절에 요약되어 있다.

설명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의 법칙을 원인의 법칙으로부터 도출하는 연역 작용 ... 어떤 개별적인 사실은 그것의 원인을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즉 그 사실의 산출이 하나의 사례가 되는 법칙 또는 인과의 법칙을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설명된다고 일컬어진다. 따라서 화재는 가연성 물질의 더미에 떨어진 스파크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설명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자연의 법칙 또는 제일성(uniformity)은 그 법칙이 그것의 사례가 되고 그것으로부터 연역 가능한 또 다른 법칙 또는 법칙들이 지적되었을 때 설명되었다고 일컬어진다. (Mill, 1963, p. 464)

이 생각에 따르면 어떤 사례를 설명하는 것은 그 사례를 규칙성(제일성)으로서의 법칙으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것이다. 일단 우리가 이런 방향에서 설명적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경험 가능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경험 가능하지 않은 요소에 호소할 필요가 없어진다. 모든 가연성 물질에 스파크가 발생할 경우

화재가 발생한다라는 규칙성과 어떤 특정한 가연성 물질에 스파크가 발생했다는 것으로부터 그 특정한 가연성 물질에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을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경험 불가능한 요소에도 호소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분석 철학적 전통에서 현대적인 설명 이론의 출발점으로 널리 인정받는 햄펠의 연역-법칙(D-N) 모델은, 비록 그 형식적 정교화에 있어서 밀의 이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밀적인 아이디어를 계승한다.⁶⁾ 설명이 기본적으로 피설명항을 법칙으로부터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법칙이 (몇몇 조건을 만족시키는) 규칙성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그의 이론은 밀의 이론과 마찬가지로 흠적 설명 이론이라고 불릴 수 있다. 설명적 관계의 성립의 분석에 어떤 종류의 필연적 연결에 대한 직접적 호소가 발견되지

6) 햄펠의 D-N 모델의 공식적인 정식화는 다음과 같이 잠재적 설명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진행된다. (Hempel, 1948, pp. 163-164)

<잠재적 설명항에 대한 정의>

(형식 언어 L의) 문장들의 순서쌍 (T, C)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단칭 문장 E에 대한 잠재적 설명항이 된다.

- (1) T는 본질적으로 일반화된 문장이며 C는 단칭 문장이다.
- (2) E는 언어 L에서 T와 C로부터 도출 가능하다.
- (3) T는 C를 그 귀결로 갖지만 E를 그 귀결로 갖지는 않는 최소한 하나의 기초 문장들의 집합과 양립 가능하다.

<설명항에 대한 정의>

문장들의 순서쌍 (T, C)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만 단칭 문장 E의 설명항이 된다.

- (1) (T, C)는 E에 대한 잠재적 설명항이다.
- (2) T는 이론이고 C는 참이다.

않을뿐더러 인과 개념처럼 필연적 연결에 대한 호소를 불러올 우려가 있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의 이론에는, ‘연역-법칙적 모델’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공식적인 정식화에서 법칙 개념조차 사용되지 않는다.

비록 햄펠의 이론은 다양한 반례에 직면해서 무너지게 됐지만 흠적 설명 이론으로서의 햄펠 이론의 정신은 그 후에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⁷⁾ 햄펠의 정신 하에서 D-N 모델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이후의 시도는 크게 봐서 다음의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D-N 모델에서 철저하게 무시되었던 인과 개념을 다시 설명 이론에 도입하되 인과에 대한 환원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경험주의적인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설명 이론을 만들겠다는 시도이다. 아마도 이런 시도를 대표하는 철학자는 W. 새먼과 D. 루이스일 것이다.⁸⁾ 두 번째는 설명이 (최소한 그 이상적인 형태에서) 규칙성으로부터 피설명항을 연역적으로 도출하는 것이라는 밀과 햄펠의 아이디어를 보존하되 제기된 반례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명적 규칙성과 설명적이지 않은 규칙성을 구분하는 세련된 장치를 도입하는 시도이다. 이 경우 규칙성으로부터의 피설명항의 도출이라는 밀과 햄펠의 아이디어가 보존되므로 경험주의적 양심은 자동적으로 보존된다. 이런 시도를 대표하는 철학자는 P. 키처이다.⁹⁾

햄펠 이후의 이런 풍조는 1980년대에 절정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시기 햄펠의 정신은 약간의 변질을 겪는다. 김재권이 지적하듯이, 햄펠의 원래 정신은 단지 (경험론의 관점에서 의심스러워 보이

7) 햄펠의 설명 이론에 대해서 제기된 다양한 표준적 반례들은 다음을 볼 것. (Salmon, 1989, pp. 46-50)

8) 이들의 이런 프로젝트는 다음을 볼 것. (Lewis, 1986a; Salmon, 1984)

9) 키처의 프로젝트는 다음을 볼 것. (Kitcher, 1989) 키처에 따르면 우리의 개별적인 지식을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일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규칙성이 설명적인 규칙성이고 그렇지 않은 규칙성이 설명적이지 않은 규칙성이 된다.

는) 필연적 연결과 같은 장치를 설명 이론에서 배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체의 형이상학적 논의를 설명 이론에서 배제하는 것이었다.¹⁰⁾ 그러나 1980년대 등장한 이론들은 인과 개념의 재도입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형이상학적 논의 자체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대신 이들은 경험론 친화적인 형이상학을 자신들의 설명 이론에 도입하고자 했다. 이 시대의 이런 정신을 대표하는 것이 D. 루이스의 ‘흡적 수반’ 논제이다. 그리고 흡적 수반 논제에 대한 수용은 이제 흡적 설명이론이 더 이상 형이상학적으로 독립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2. 흡적 설명 이론의 형이상학적 전제

앞 절에서 언급되었듯이, 1980년대를 정점으로 하는 20세기 후반의 지배적인 시대정신은 흡적 설명 이론을 흡적 형이상학을 배경으로 진행시킨다는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한 가장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를 제시한 D. 루이스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흡적 수반’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흡적 수반이라는 이름은 위대한 필연적 연결의 거부자에 대해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붙여졌다. 이것은 세계 속에는 국지적인 특정한 사실들의 거대한 모자이크만이 존재한다는, 즉 하나의 작은 사실 옆에 또다른 작은 사실들이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국지적인 사실들이 정신적이라는 것은 이

10) 김재권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폴 오피하임과 함께 쓴 영향력 있는 (seminal) 논문 ‘설명론의 논리에 관한 연구’에서 형식 논리, 또는 논리적 이론의 통사론이 여전히 이론 개발의 주된 도구였다. 이 논문 2부에 나오는 법칙과 설명에 대한 이들의 형식적 정의들은, 비록 ‘(T, C)가 E에 대한 설명항이다’에 대한 정의에서 진리라는 개념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통사론적이다.” (Kim, 1999, p. 6)

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기하학을 갖는다. 즉, 점들 사이의 시공간적인 거리라는 외적 관계들의 시스템을 갖는다. ... 그리고 이 점들에서 우리는 국소적인 성질들을 갖는다. 이 성질들은 완벽하게 자연적이고 내재적인 속성들이며 예화되기 위해서 하나의 점보다 더 큰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짧게 말해서, 우리는 성질의 배열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게 다다. 성질의 배열에서의 차이 없이는 어떤 차이도 없다. 모든 다른 것들은 이 배열에 수반한다.(Lewis, 1986c, p. ix)

이 논제에 따르면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공간 구조 안에 존재하는 국지적인 사실들(앞으로 이런 사실들을 ‘흠적 사실’이라고 부를 것이다)의 배열이다. 설명적 관계를 포함한 다른 모든 것은 이 흠적 사실들의 배열에 수반한다. 이 흠적 수반 논제에는 다양한 논제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논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개의 논제이다. 그 첫 번째 논제는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흠적 사실들의 배열뿐이므로 우리 세계에는 전적으로 구분되는 사실들 사이의 필연적 연결과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논제는 No Necessary Connection (NNC)라고 불릴 것이다. 두 번째 논제는 설명적 관계는 흠적 사실들의 배열에 수반한다는 것이다. 이 논제는 앞으로 Humean Supervenience concerning Explanation (HSE)라고 불릴 것이다. 필자가 이 논문에서 논증하고자 하는 핵심 주장은 이 두개의 논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찰로부터 출발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HSE는 NNC를 함축한다. 이 논문에서의 필자의 주장은 기본적으로 이 함축 관계의 하나의 귀결이다.

이 함축 관계를 설명하기 앞서 약간의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필자는 필연적 연결에 호소하지 않는 이론을 ‘흠적 이론’이라고 불렀으므로 설명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필연적 연결에도 호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론은 ‘흠적 설명 이론’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어떤 이론이 HSE를 받아들이면 그 이론은 자동적으로 흠적 설명이론이 된다. 일견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어떤 설명 이론이 설명적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흠적 사실들의 배열과 더불어 설명을 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의 상태에 대한 호소가 필요하며, 그 마음의 상태의 분석에는 필연적 연결은 불필요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의 상태가 흠적 사실에 수반하지 않는 원초적인 또는 창발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런 이론은 우리의 정의에 따라서 흠적 설명이론이 되겠지만 HSE는 받아들이지 않는 이론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앞에서 언급된 새먼, 루이스, 키처를 포함해, 오늘날의 흠적 설명이론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들은 이런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직간접적으로 HSE에 동조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흠적 설명이론’과 ‘HSE를 받아들이는 설명이론’을 동의어인 것으로 취급하여 사용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주장은 흠적 설명이론은 NNC에 대한 전제(commitment)를 갖는다는 것으로 다시 쓸 수 있다. 필자는 이미 다른 곳에서 이 형이상학적 전제를 논증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최대한 단순한 방식으로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¹¹⁾

NNC를 거부한다는 것은 필연적 연결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를 앞으로 NC라고 부를 것이다. 오늘날 철학 시장에는 NC를 받아들이는 두 개의 이론이 존재한다. 그 첫 번째는, 대표적으로, D. 암스트롱의 이론으로 필연화 관계라는 이차 보편자를 받아들이는 이론이다.¹²⁾ 이 이론에 따르면 F라는 속성과 G라는 속성 사이에 법칙적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이들 사이에 $N(F,G)$ 라는 이

11) 필자는 이 주장을 여러 논문에서 제시한 적이 있으나 가장 포괄적인 논증은 이재호(2013)에 나타난다.

12) 이 이론은 암스트롱과 함께, F. 드레츠키와 M. 툴리도 옹호하므로 종종 ‘ADT이론’이라고도 불린다. 암스트롱의 이론은 다음을 볼 것. (Armstrong, 1983 Part II)

차 보편자가 추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N(F,G)$ 는 F 와 G 라는 일차 보편자에 추가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F 와 G 는 존재하지만 $N(F,G)$ 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며 따라서 암스트롱의 그림에 따르면 F 와 G 같은 일차 보편자 사이에 필연적 연결은 없다. 그러나 N 이 필연화 관계이기 때문에 $N(F,G)$ 와 F 인 것과 G 인 것들 사이의 규칙성, 즉 $R(F,G)$ 와의 사이에 필연적 연결이 존재한다. 두 번째 이론은 흔히 ‘성향 본질주의’라고 불리는 이론으로 이에 따르면 자연적 속성들은 성향적인 본질을 갖는다. 예를 들어 질량이라는 속성은 다른 질량을 가진 것을 잡아당기는 성향을 본질적으로 갖는다. 따라서 질량이 존재하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는 가능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자연 법칙은 필연적이게 된다.¹³⁾

HSE가 NNC를 함축하게 되는 것은 어떤 종류의 필연적 연결이 존재하면 그 필연적 연결은 반드시 설명적 힘을 갖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세계에 F 인 것들이 모두 G 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이 세계에 $N(F,G)$ 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왜 모든 F 인 것이 G 인지를 물을 수 있다. 우리는 $R(F,G)$ 를 통해서 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 피설명항을 바로 그 피설명항을 통해서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이 현상이 설명 불가능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N(F,G)$ 가 $R(F,G)$ 를 사소하지 않은 방식으로 필연화함에도 불구하고 $R(F,G)$ 를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슷한 논증은 성향 본질주의에 대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만약 질량이 다른 질량을 가진 것을 잡아당기는 성향적 본질을 갖는다면 그 사실은 왜 어떤 특정한 질량을 가진 물체가 다른 질량을 갖는 물체

13) B. 엘리스, A. 버드 등이 이 이론의 대표적인 옹호자이다. (Bird, 2007; Ellis, 2001)

를 잡아 당기는지에 대한 설명에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

이로부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HSE는 NNC가 참이지 않은 세계에서는 참일 수 없다는 것이다. 흄적 설명이론은 형이상학적으로 중립적인 이론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형이상학적인 논의 일체를 배격하고 순수하게 형식 논리적으로 흄적 설명 이론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었던 햄펠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가 NNC가 참이지 않은 세계에서 HSE가 참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NNC가 참이지 않은 세계가 가능한지 물을 수 있다. 만약 NNC가 참이지 않은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흄적 설명이론이 형이상학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이 철학적으로 아주 흥미롭지는 않을 수 있다. 어떤 이론이 어떤 불가능한 것의 부존재를 전제한다고 해서 그 이론이 형이상학적으로 큰 정당화의 부담을 지는 이론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NNC가 참이지 않은 세계의 가능성을 일단 전제하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혹자는 이 전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불만에 대해서 필자는 결론에서 흄과 오늘날의 흄주의자를 비교하면서 대응할 것이다.¹⁴⁾

3. 필연적 연결의 도입은 반경험주의적인가?

이 절에서 필자는 필연적 연결을 도입하는 것이 반경험주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능할 지 모르나 필연적 연결을 도입하는 것은 반경험주의적이고 필연적 연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경험주의 친화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14) 필연적 연결성의 가능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흄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논증들이 갖는 문제는 Lee(draft)를 참조할 것.

서 필자는 흄주의와 반흄주의를 **차별화 하는 방식으로** 필연적 연결을 도입하는 것이 반경험주의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당화하기 매우 어려운 주장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험주의 친화적 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 경험주의 친화적 이론이란 무엇인가?

생각할 때 머리 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그것이 경험주의 친화적이지 않은 존재, 예컨대 2차 보편자로서의 암스트롱의 필연화 관계와 같은 것을 도입하기 때문에 경험주의 친화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생각은 우리에게 경험주의 친화적 이론과 그렇지 않은 이론 사이를 나누는 기준으로 경험주의 친화적 존재의 도입 여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기준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흄적 사실 이외에 어떤 것도 도입하지 않는 흄주의는 경험론 친화적인 반면 필연화 관계와 같은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은 존재를 도입하는 반흄주의는 그렇지 않다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이 기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난다. 흄의 필연적 연결에 대한 공격을 생각해 보자. 흄이 인과의 분석에 그렇게 매달린 것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식의 범위를 넘어가는 모든 지식은 어떤 형태로라도 인과 개념에 의존하게 된다는 그의 생각 때문이었다.¹⁵⁾ 그는 귀납적 추론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인과 관념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15) 흄은 “단순한 관념에 의존하지 않는 이 세 관계들[동일성 관계, 시공간 관계, 인과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감각을 넘어 추적되고 우리에게 우리가 보거나 느낄 수 없는 존재와 대상들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관계는 인과뿐인 것으로 보인다”(Hume, Selby-Bigge, & Nidditch, 1978, p. 74)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일상적인 인과 관념 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필연적 연결에 대한 관념이 경험주의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귀납적 추론을 공격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귀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연적 연결에 호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귀납 원리를 단순히 원초적인 원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러셀이 제안한 다음의 원리가 선험적으로 알려지는 원초적 원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어떤 종류 A의 사물이 다른 종류 B의 사물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발견되고 B의 사물들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A와 B가 연결되는 사례의 수가 커질수록 이들 가운데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진 새로운 경우에서 이들이 연결될 확률은 커진다. (Russell, 1990, p. 66)

이 러셀의 원리가 자체로는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은 존재의 도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하라. 만약 우리가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은 존재의 도입 여부로 경험론 친화성 여부를 가린다면 러셀의 원리를 선험적인 원초적 원리로 받아들이는 이론은 경험론 친화적인 이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러셀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생각이며 아마도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일 것이다.¹⁶⁾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어떤 이론의 경험론 친화성 여부를 단순

16) 러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미 진술된 이유로 논리적 원리들은 우리에게 알려지지만, 모든 이 원리들의 증명이 이 원리들을 전제하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 증명될 수는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논쟁의 가장 중요한 지점인 이 점에서 합리론자들이 옳다.” (Russell, 1990, pp. 73-74) 러셀은 귀납의 원리의 위상을 논리적 원리의 위상과 유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귀납의 원리를 선험적 원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론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게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은 존재를 도입하는지를 통해서 판별할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이론이 경험론 친화적인 주장만 용인하느냐 여부로 경험론 친화성을 결정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위의 러셀의 원리를 선형적인 원리로 받아들이는 이론은, 적어도 그 측면에서는,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은 이론이 된다. 러셀의 원리는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은 존재의 도입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 원리 자체가 경험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기준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은 존재의 도입에 대해서 특별히 너그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은 대상 X를 도입하는 이론은 “X가 존재한다”는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은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 새로운 기준을 사용해서 필연적 연결을 도입하는 이론이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은 이론이 되는지를 검토해 나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앞으로 “필연적 연결이 존재한다”라는 주장과 “필연적 연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경험론 친화적인 주장인지를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경험론 친화적인 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기준을 갖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경험론이라는 것은, 합리론이 그렇듯이, 하나의 단일하고 통일된 주장 또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경험론은 끊임없이 새로운 옷을 갈아입으며 역사 속에 새로운 형태로 등장해 왔다. 따라서 경험론 친화성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필자는 어떤 특정한 경험론 친화성 개념을 사용하는 방법을 쓰기보다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 나타났던 경험론 친화성 기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필연적 연결의 도입을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은 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기준들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2) 관찰 가능성

우리가 검토해 볼 첫 번째 기준은 관찰 가능성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관찰 가능하지 않은 대상을 도입하는 이론은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게 된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것은 경험론 친화성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관찰가능하지 않은 대상을 도입하는 것은 경험론 친화적이기 없음에 (필요하지는 않지만) 충분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암스트롱의 필연화 관계는,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관찰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르면 암스트롱의 이론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이 세계에 관찰 불가능한 대상을 도입하게 되기 때문에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은 이론이 된다. 필자는 이런 의미에서 암스트롱의 이론이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반대할 생각이 없다. 문제는 이런 기준에 따를 경우 상당수의 흠주의 이론들이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과학적 실재론 논쟁은 전자나 쿼크와 같은 관찰 가능하지 않은 이론적 대상들의 존재를 언급하는 이론이 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와 관련해서 벌어지는 논쟁이다. 그런데 전자나 쿼크와 같은 것의 존재를 참으로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는 흠주의와 반흠주의 사이의 논쟁과 관련해서 중립적이며 루이스를 비롯해 실재로 많은 흠주의자들은 흔쾌히 과학적 실재론의 편에 서는 것으로 보인다.¹⁷⁾ 관찰 가능성 기준이 경험주의 친화성을 테스트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흠주의와 반흠주의를 경험주의 친화성과 관련해서 차별화하는 기준으

17) 루이스는 자신의 법칙 이론을 정식화할 때 ‘참인 연역적 시스템’의 정리일 것을 요구한다. (Lewis, 1973, p. 73) 루이스는 법칙에 대한 지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는 현대 물리학의 법칙이 법칙이라고 생각하므로 그는 이론적 대상에 대한 지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로 사용될 수는 없다. 더 나아가 관찰 가능성 기준이 경험주의 친화성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인지도 의심스럽다. 이 논문에서 자세히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과학적 반실재론에 대한 고전적인 비판은 그것이 선택적 회의주의라는 것이다.¹⁸⁾ 많은 철학자들이 지적하듯이 과학적 반실재론을 옹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논증들은 현상론을 옹호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은 현상론을 제외한 모든 이론을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은 이론으로 만들어 버릴 위험이 있다. 그리고 오늘날 흙주의자와 반흙주의자의 논쟁에 참가하는 흙주의자들 가운데, 적어도 필자가 아는 한에서, 현상론을 옹호하는 사람은 없으며 실재론자는 경험주의 친화적 이론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

3) 관찰 가능한 대상과의 유사성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순한 관찰 가능성 기준은 흙주의와 반흙주의를 경험주의 친화성과 관련해 차별화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흙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관찰 가능성 기준을 조금 더 세련되게 변형할 수 있다. 하나의 방법은 관찰 불가능한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형이상학적으로 관찰 가능한 대상과 동종의 대상이라면 넓은 의미에서 관찰 가능한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암스트롱의 N 관계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일상적인 대상과 전적으로 상이한 종류의 존재이다.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은 특정한 시공간을 점유하지만 N관계는 그런 대상이

18) 이 반론은 다음을 볼 것. (Ladyman, 2002, p. 193; Ladyman, Douven, Horsten, & Fraassen, 1997 Sec.5; Railton, 1989) 이 반론에 따르면 우리가 간접 실재론을 받아들일 경우 (많은 과학적 반실재론자들과 흙주의자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일상적인 대상의 실재론은 과학적 실재론이 정당화되지 않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아니다. 이와 다르게 전자나 쿼크와 같은 대상들은 관찰 불가능한 대상이기는 하지만 관찰 가능한 책상이나 의자와 같은 대상과 마찬가지로 특정 시공간을 점유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르면 과학적 실재론자이기도 한 흄주의자들은 관찰 불가능한 대상을 도입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암스트롱은 관찰 불가능한 대상을 도입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세련된 관찰 가능성 기준 역시 흄주의와 반흄주의를 차별화하는 기준으로 쓰일 수 없다. 우선, 흄주의자들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경험론 친화적인 이론을 갖게 된다고 볼 이유가 없다. 루이스를 비롯한 많은 흄주의자들은 우리가 적절한 법칙, 인과, 설명 이론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편자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¹⁹⁾ 그런데 1차 보편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경험론 친화적인 것이지만 2차 보편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보편자는 보편자인 한에서 특정 시공간을 점유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루이스가 명시적으로 보편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보편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도 않는다. 더 나아가 루이스가 선호하는 원초적인 자연적 집합으로서의 자연적 속성 역시 특정한 시공간에 존재하는 관찰 가능한 대상은 아니다.²⁰⁾

흄주의자들은 이 기준을 좀 더 세련화해서 경험 가능한 일상적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떤 존재를 도입하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경험가능하지 않은 대상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19) 루이스는 명시적이고 다양한 논증을 통해서 이를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Lewis, 1983) 키처 역시 자신의 이론이 작동하려면 ‘투사 가능한 술어’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Kitcher, 1989, p. 482)

20) 루이스의 보편자와 자연적 집합에 대한 비교는 다음을 볼 것. (Lewis, 1986b Sec. 1.5)

도 있다. 이 경우 1차 보편자는 일상적인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암스트롱의 N 관계는 자체로는 일상적인 대상에 추가되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관찰 불가능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추가적인 세련화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기준에 따르면 성향 본질주의는 경험론 친화적인 이론이 되기 때문이다. 내 눈 앞에 있는 책상은 관찰 가능한 대상인 것으로 보이며 그것은 당연히 질량을 갖는다. 그런데 성향 본질주의자에 따르면 질량은 본질적 성향이라는 필연적 연결의 한 종류를 갖는다. 따라서 성향 본질주의자에 따르면 질량을 가진 책상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종류의 필연적 연결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 보면 필연적 연결을 받아들이는 것은 일상적인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과 전혀 동떨어진 범주의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반흙주의자가 관찰 가능한 일상적인 대상을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른 어떤 것을 받아들인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관찰 가능한 일상적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흙주의자들의 생각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다.²¹⁾

4) 검증 또는 반증 가능성

아마도 20세기 분석 철학적 전통에서 경험론 친화성에 대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기준은 경험을 통한 검증, 또는 반증 가능성 기준일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기준 모두 흙주의와 반흙주의를 차별화하는 기준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우선 검증 기준을 생각해 보자. 우선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과학적 실재론

21) 아마도 이 비판에 직면해서 흙주의자들은 일상적인 대상의 관찰 가능한 측면 이외의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반발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4.1에서의 논의에서 분명해질 것이다.

논쟁은 이론적 대상에 대한 이론들이 경험에 의해서 과소결정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이론적 대상을 언급하는 임의의 이론 H에 대해서 그것과 양립 불가능하지만 동일한 경험적 귀결을 갖는 대안적 이론 H', 예컨대 '데카르트적 악마가 관찰된 경험적 현상들을 만들어 냈다'는 가설과 같은 이론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검증 가능성 기준을 사용한다면 많은 흠적 이론들도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경험의 한계를 넘어가는 어떤 지식의 획득 가능성을 주장하는 모든 이론은 경험을 통한 검증 가능성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검증 가능성 기준은 경험론 친화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라고 보기에 너무 강한 기준이다.

반면에 K. 포퍼식의 반증 가능성 기준을 사용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명백하게 암스트롱의 $N(F,G)$ 는 반증 가능하다. 만약 우리 세계에서 a가 F인 것이 관찰되었는데 그것이 G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자. 그렇다면 $N(F,G)$ 는 반증된다. $N(F,G)$ 는 $R(F,G)$ 를 필연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증 가능성 기준을 사용할 경우 터무니없이 강한 기준을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암스트롱의 이론을 경험론 친화적인 이론으로 만든다. 뒤에서 살펴 보겠지만 반증 가능성 기준은 사실 반흠주의보다는 흠주의를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은 이론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4. 필연적 연결의 부정은 경험주의적인가?

앞에서 우리는 흠주의를 경험론 친화적으로 만들어 주고 반흠주의를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경험론 친화성의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이미 흠주의자들에게 나쁜 소식이다. 그러나 상황은, 흠주의자들에게, 보다 암울하다. 왜

냐하면 우리는 반대로 흄주의를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게 만들어 주고 반흄주의를 경험론 친화적이게 만들어 주는 꽤나 합리적인, 즉 극단적으로 강하거나 약하지 않은, 경험론 친화성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최소한 4개의 측면에서 이런 작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1) Quiddity와 경험주의

성향 본질주의자들은 종종 ‘신흄주의자(neo-Humean)’라는 명칭과 대조해서 ‘신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neo-Aristotelian)’라고 불린다. 대상이 본질적인 성향을 갖는다는 아이디어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이미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성향 본질주의 유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S. 슈메이커의 유명한 논문 ‘인과성과 속성’이다. (Shoemaker, 1980) 이 논문에서 슈메이커의 핵심 논증은 인식론적이다. 만약 어떤 속성이 갖는 법칙적/인과적 역할이 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지 우연적인 것이어서 그 속성의 정체성을 구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속성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적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상의 속성에 대한 경험적 인식은 그 대상의 속성이 우리의 감각에 갖는 인과적 영향에 의존하기 때문이다.²²⁾ 흄주의에 따를 경우 우리는 질량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기술하는 규칙성에 따르는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질량이 자체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질량이 반드시 만유인력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만유인력의 법칙에 대응하는 규칙성이 반드시 질량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흄주의에 따르면 속성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인식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따라서

22) 이 문제는 나중에 루이스에 의해서 ‘램지적 겸손’으로 불린다. (Lewis, 2009)

당연히 경험적으로도 접근 불가능한, 원초적인 속성 개별화 원리 (Quiddity)에 의해 결정되게 된다. 이는 흄주의가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은 형이상학적 요소에 대한 전제를 갖는 이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서, 슈메이커가 강조하듯이, 성향 본질주의적 접근에 따르면 우리는 속성의 정체성에 인식적인 접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인과 법칙에 인식적 접근을 가지며 인과 법칙을 통해 알려지는 속성의 인과적 힘이 바로 속성의 본질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Quiddity의 문제는 조금만 깊게 들어갈 경우 흄주의가 인식론적인 차원에서 반흄주의보다 유리한 이론이라는 생각이 편견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반증 가능성과 입증 가능성

흄주의가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은 이론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마도 가장 강력한 방식은 흄주의가 전제를 갖고 있는 NNC라는 주장이 검증은 물론 반증도 불가능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암스트롱의 $N(F,G)$ 가 검증 가능하지는 않을 지라도 명백히 반증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N(F,G)$ 는 어떤 대상이 F라는 속성을 갖고 있지만 G라는 속성을 예화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반증된다. 그러면 NNC는 어떤 경우에 반증되는가?²³⁾

23) 한 익명의 심사자는 반증 가능성 기준과 관련해서 $N(F,G)$ 와 NNC를 비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흄주의자들에게 있어서 $N(F,G)$ 와 대응하는 것은 $R(F,G)$ 이므로 이 둘을 비교해야 하는데, $R(F,G)$ 는 반증 가능하므로 이들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 지적은 필자가 사용하는 경험론 친화성의 기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필자는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은 주장을 포함하는 이론을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은 이론이라고 정의했다. 암스트롱의 이론에 있어서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은 주장으로 지목되는 것이 $N(F,G)$ 가 존재한다는 주장이고, 필자에 따르면, 흄주의에서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은 주장은 NNC이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문

우리 세계에 관찰된 규칙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NNC가 반증된다는 것은 분명 불합리하다. 그렇다면 우리 세계에 관찰된 규칙성이 나타날 경우 NNC는 반증되는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흄주의는 경험론 친화적인 이론이 되기는 하겠지만 틀린 이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세계에는 규칙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흄주의자들은, NNC는 규칙성에 의해서도 규칙성의 부재에 의해서도 반증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필연적 연결의 존재 또는 부존재와 관련해서 규칙성 외에 어떤 경험적 증거가 존재할 수 있는가? NNC는 포퍼식의 반증 가능성 기준에 따르면 반증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봐야 한다.

문제는 좀 더 심각하다. NNC는 검증과 반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예 경험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NNC는 경험을 통해 검증 또는 반증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입증도 불가능하다. 암스트롱에 따르면 $N(F,G)$ 는 최선의 설명으로의 추론(IBE)이라는 입증 원리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모든 관찰된 F 들이 G 라는 경험적 증거는 설명을 요구하고 이 경험적 증거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 $N(F,G)$ 이기 때문에 $N(F,G)$ 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Armstrong, 1983, p. 40) 이 논증에 따르면 $N(F,G)$ 의 존재에 대해서는 명확한 경험적 증거가 있다. 물론 이 경험적 증거는 $N(F,G)$ 의 존재를 과소 결정하며 따라서 검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증거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NNC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무엇인가? 규칙성의 부존재를 그 증거로 제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런 증거는 우리 세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NNC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도 NNC는 경험론 친화적인 주장이 될 수 없으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흄주의는 경험론 친화적일 수 없게 된다.

3) 콰인의 급진적 경험주의

흄주의자들은 4.2에서의 필자의 논증에 대해서, 필자가 사용한 ‘경험적 증거의 존재’라는 기준이 시대에 뒤떨어진 경험주의 친화성 개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들은 이론과 그것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그것이 입증이면 반증이면) 국소적으로 대응한다는 생각은 소위 ‘뒤뭍-콰인 논제’에 의해서 이미 결정적으로 비판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들은 콰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입증 전체주의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일견 경험적인 입증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예컨대 논리적인 원리와 같은 것들도 결국 경험적인 입증의 대상이 된다는 콰인의 급진적 경험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²⁴⁾ 콰인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은 소위 믿음의 그물망(web of belief)을 형성하며 전체론적으로 입증된다.²⁵⁾ 이 믿음의 그물망의 표층부에는 경험으로부터 즉각적으로 개정 가능한 믿음들이 분포한다. ‘이 사과를 빨갱다’와 같은 믿음이 그런 믿음에 속한다. 반면 이 그물망의 중심부에는 형이상학적 원리나 논리적 원리와 같이 흔히 ‘선험적인 원리’라고 불리는 원리들이 있다. 이 원리들은 경험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개정되지 않기 때문에 ‘선험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선험적인 것은 아니다. 양자역학에서 배중률이 부정되는 것처럼 충분한 경험적 증거가 존재할 경우 이런 믿음들도 경험을 통해서 개정 가능하며 따라서 경험적인 입증의 대상이 된다.

이제 흄주의자들은 NNC가 경험적으로 반증 불가능하며 더 나아

24) ‘급진적 경험주의(radical empiricism)’라는 용어는 봉쥬르의 용어법에서 빌려온 것이다. (BonJour, 1998, p. 62)

25) 콰인의 입증 전체주의는 다음을 볼 것. (Quine, 1951 Sec.6)

가 이것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없다는 4.2에서의 필자의 주장은 논리적 원리가 경험적으로 반증 불가능하고 경험적으로 입증되지도 않는다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콰인의 주장에 동조해 우리는 믿음의 그물망을 유지하면서 가장 단순한 체계를 선호하게 되는데 흄주의가 바로 그런 체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입증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필자는, 4.1와 4.2에서의 논의가 주어질 경우 흄주의의 경험론 친화성을 주장하는 가장 나은 방식이 바로 콰인의 급진적 경험주의에 호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콰인의 급진적 경험주의에 호소하는 것이 흄주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미 지적된 것처럼 콰인에 따르면 전통적인 경험적인 지식과 선험적인 지식의 구분은 신화에 불과하며 모든 우리의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험적인 지식과 선험적인 지식의 이분법적 구분이 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전통적인 구분에 대략적으로 대응하는 구분은 어떤 형태로라도 유지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구분이 전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면 철학의 역사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영향력을 미쳐 왔고, 콰인의 비판 이후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가질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²⁶⁾ 따라서 콰인의 입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선험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의 구분에 대한 우리의 직관은 최소한 해소되어야(explained away) 한다. 콰인에게서 그 구분은 앞서 언급되었던 표층부의 믿음과 중심부의 믿음의 구분으로 해소된다. 물론 이 구분은 이분법적이지 않으며 연속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상학적이거나 논리적인 원리에 관한 믿음은 일상적인 대상의 관찰 가능한 속성에 관한 믿음보다

26) 선험성을 콰인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옹호하고자 하는 최근의 시도를 위해서는 다음을 볼 것. (Chalmers, 2012)

중심부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며 이 중심성의 위계 구조를 위반하는 이론은 콰인의 급진적 경험주의의 정신에 의해서 배척되어야 한다.

일단 우리가 믿음의 중심성에 관한 이 구분을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설명 이론에 관한 믿음과 현실세계의 우연적인 형이상학적 구조에 대한 믿음들 가운데 어떤 믿음이 보다 중심부에 위치해야 하는 믿음인지를 물을 수 있다. 우리는 이미 NNC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우연적인 참이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²⁷⁾ 이는, 흄적 설명 이론이 NNC를 전제하므로, 흄적 설명 이론 역시 우연적으로 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흄주의자들에게 NNC는 어떤 종류의 개별적인 경험적 증거에도 반응하지 않는 믿음이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입증도 반증도 불가능한 믿음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흄적 설명 이론이 갖는 중요한 두 개의 특징이 드러난다. 우선, 흄적 설명 이론은 NNC라는 현실 세계의 우연적인 특징에 관한 믿음을 우리의 믿음 체계의 중심부에 위치시키는 이론이다. 다음으로 흄적 설명 이론은 NNC와 같은 현실 세계의 우연적인 사실에 관한 믿음과 설명 이론에 관한 믿음 사이에 중심성의 격차를 인정하지 않는 이론이다.

이 결과를 암스트롱의 이론과 비교해 보도록 하자. 암스트롱은 직접 체계적인 설명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N(F,G)$ 가 모든 관찰된 F 가 G 라는 경험적 증거에 대한 최선의 설명이고, $R(F,G)$ 는 이 증거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반흄적인 설명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그의 반흄적 설명이론은 NC에 대한 사전적인 전제를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암스트롱도 F 와 G 사이의 관찰된 규칙성이라

27) 여기서 필자는 ‘우연적인 참’으로 필연성과 선행성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연적인 참을 의미한다.

는 경험적 증거가 없다면 $N(F,G)$ 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암스트롱에게 있어서 NC라는 우연적인 참에 대한 믿음은 경험적 증거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표층적인 믿음인 반면, 설명 이론은 경험적 증거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중심부 믿음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암스트롱의 이론은 현실 세계의 우연적인 참에 관한 믿음은 표층부에 위치시키고 설명 이론에 대한 믿음은 중심부에 위치시키는 이론이다.

이제 우리가 콰인의 급진적 경험주의의 정신을 받아들일 경우 어떤 이론을 선호해야 하는지는 분명하다. 우선, 현실 세계에 대한 (고전적인 기준에서의) 우연적 참에 관한 믿음을 표층부에 위치시키는 체계가 선호 되어야 한다. 우리가 고전적인 반증가능성이나 입증 가능성 기준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NNC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설명 이론에 관한 믿음을 현실 세계에 대한 우연적 참에 관한 믿음보다 중심부에 위치시키는 체계를 선호해야 한다. 이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논증될 수 있다. 우선 우리가 우리의 방법론적 원리로서 IBE를 받아들인다고 해 보자. 그렇다면 설명 이론은 당연히 방법론적 원리에 포함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방법론적 원리를 경험적 증거에 적용해서 나온 결론보다 중심부에 위치 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IBE를 방법론적 원리로 받아들이는 암스트롱은 정확하게 이 원리를 준수하고 있다. 그리고 흄주의자들에게도 IBE는 거부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한 바 있듯이 많은 흄주의자들은 과학적 실재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과학적 실재론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IBE를 자신들의 방법론적 원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Ladyman, 2002, p. 196) 다음으로 콰인 자신의 이론도 설명 이론의 중심성을 받아들인다. 콰인은 다음과 같이 존재론의 선택 과정을 설명한다.

나는 우리의 존재론의 채택이 원리적으로 물리학의 시스템과 같은 과학 이론에 대한 우리의 채택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합리적인 한에서, 질서지워지지 않은 날 경험의 조각들이 짜맞춰지고 배열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개념적인 틀을 채택한다.(Quine, 1999, p. 10)

콰인이 설명하는 과학과 존재론의 이론 선택 과정은 오늘날의 IBE와 그 정신에 있어 매우 유사하다. 경험을 조직화하는 가장 단순한 체계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존재론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A. 오렌스타인은 “과학적 관례에 따라서, 우리는 상대적 설명적 힘, 단순성, 정확성 등에 따라서 두 가설을 평가해야 한다”(Orenstein, 2002, p. 47)라며 콰인의 존재론적 방법론을 설명한다. 비록 콰인이 반흠적 설명 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설명 개념이, 우리의 믿음 체계에 특정한 존재론적 그림보다 중심부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콰인에게도 적용되는 생각이다.

4) 베이즈주의

과학적 실재론 논쟁은 종종 사람들에게 IBE는 합리론자의 입증 원리, 베이즈주의는 경험론자의 입증원리라는 인상을 심어 주었다. 실재론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IBE를 채택하는 반면 반실재론자들은 (의무적인 입증 원리로서의) IBE를 거부하고 대안적으로 베이즈주의에 호소해 왔기 때문이다.²⁸⁾ 베이즈주의가 경험론 친화적인 입증원리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다. 사실 베이즈주의가 귀납적 입증원리인지 자체가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Strevens, 2004) 베이즈 정

28) 엄밀히 말해서 반실재론자들이 IBE의 사용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IBE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 즉 우리가 의무적으로 IBE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거부할 뿐이다.

리 자체는 기본적으로 확률 값의 일관성에 관한 연역적 원리이지 귀납적 원리는 아니다. 필자는 여기서 베이즈주의 입증 원리가 흠주의에게 우호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생각은 없으며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베이즈주의 입증 원리에 의한 입증 가능성이 경험론 친화성의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흠주의자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보여질 수 있다. 우선, 이미 지적된 바 있듯이 많은 흠주의자들은 과학적 실재론자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과학적 실재론이 베이즈주의 입증 원리에 의해서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보다 중요하게, 과학적 실재론 논쟁과 별개로, 베이즈주의 입증 원리는 반흠주의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N(F,G)$ 는 관찰된 F 들과 G 들 사이의 규칙성을 연역적으로 함축하고 이 경우 이 관찰된 규칙성은 $N(F,G)$ 의 확률을 높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NNC 의 확률을 높여줄 경험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규칙성은 필연적 연결의 확률을 높여주는 반면 규칙성의 부재는 경험되지 않기 때문이다.²⁹⁾

5. 결론 - 흠 vs. 흠주의자

필자의 지금까지의 논증이 성공적이라면 우리는 다음의 딜레마를 갖는다. 만약 우리가 관찰 가능성이나 검증 가능성과 같은 강한 경험론 친화성 기준을 받아들인다면 반흠주의는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은 이론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흠주의조차 충족할 수 없는 기준이다. 사실 이런 기준은 너무나 강한 기준이어서

²⁹⁾ 베이즈 주의 입증 원리가 흠주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다는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재호(2020)을 참고할 것.

현상론과 같은 관념론 철학을 받아들이거나 총체적인 회의주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경험론 친화성 기준이다. 반대로 우리가 반증 가능성이나 경험적 증거를 통한 입증 가능성, 또는 과인식의 급진적 경험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흄주의가 아니라 반흄주의가 경험론 친화적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수준의 경험론 친화성 기준을 사용한다는 전제하에서 흄주의보다 반흄주의가 경험론 친화적인 이론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아마도 이 결론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릴 것이다. 근대 철학의 거장들 가운데 가장 철두철미한 경험주의자가 흄이라는 것에는 논란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흄주의”가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은 이론이 될 수 있는가?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흄과 (오늘날의) 흄주의자들 사이에 놓여 있는 깊은 간극을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구해져야 한다. 이 논문이 철학사에 관한 논문은 아니지만 이 해답을 위해 흄의 작업을 오늘날의 흄주의자들의 작업과 비교해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앞서 흄의 필연적 연결에 대한 공격이 그의 경험주의에 기반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주의적 아이디어에 기반해 있는가? 흄의 철학체계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원리는 그가 인간 본성에 관한 학문의 제일 원리라고 부른 다음의 원리이다. “우리의 모든 단순 관념들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들의 대응하는 인상들로부터 유래한다.” (Hume et al., 1978, p. 7) 이 제일 원리로부터 흄의 일반화된 철학적 방법론이 귀결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정체를 알고 싶은 개념(관념)이 존재할 경우 우리는 그 관념이 어떤 인상에서 유래하였는지를 역추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흄은 실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실체와 우유성의 구분에 그토록 자신의 추론을 근거 지우고

우리가 이들 각각에 명확한 관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철학자들에게 실체의 관념이 감각의 인상에서 유래한 것인지 아니면 반성의 인상에서 유래한 것인지를 묻고자 한다” (Hume et al., 1978, pp. 15-16) 이 방법론은 당연히 인과의 분석에도 사용된다. 그는 “우리는 인과의 관념을 고찰해야 하고 어떤 원천으로부터 이것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의 추론의 대상이 되는 관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 없이 추론을 제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어떤 관념을 그것의 기원으로 역추적해서 그것으로부터 그 관념이 나온 일차적인 인상을 검사하지 않고서는 어떤 관념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Hume et al., 1978, pp. 74-75) 흄의 필연적 연결에 대한 공격은 인상을 통한 관념 분석이라는 그의 일반적 방법론의 귀결이다. 그의 비판의 핵심 논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과 관념에는 필연적 연결의 관념이 들어 있는데, 필연적 연결의 관념은 어떤 외적 인상에서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흄은 필연성의 관념은 내적 인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Hume et al., 1978, p. 165)

흄의 이 논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과 관념과 필연적 연결의 관념을 분석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필연성 관념이 외적인 경험의 결과물일 수 없다는 흄의 논증이 타당하고 따라서 우리는 필연적 연결이 세계 안에 존재한다는 믿음을 경험주의적 정신에 입각해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이 공격은 기본적으로 인식론적인 공격이다. 따라서 필연적 연결에 대한 흄의 공격은 자체로 필연적 연결의 불가능성이나 부재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으로부터 그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귀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어떤 철학자들은 궁극적으로 흄의 인식론적 공격이 오컴의 면도날

을 통해서 형이상학적 부재성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S. 사이러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흠에게 있어서 그런 드러날 수 없는 힘을 상정하는 것은, 특히 흠이 필연성에 대한 우리의 관념의 기원을 힘과 같은 것에 대한 어떤 호소도 없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존재를 불필요하게 늘리는 것이 될 것이다. (Psillos, 2002, p. 40)

물론 흠이 오컴의 면도날의 사용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면 그는 이 면도날을 사용해서 필연적 연결의 부존재를 논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필연적 연결의 부존재를 흠의 인식론적 논증으로부터 도출하는 것은 흠의 정신에 어긋난다. 흠은 일체의 귀납적 논증의 정당성을 의심했으며 이런 흠의 회의주의로부터 오컴의 면도날이 면제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흠은 필연적 연결의 불가능성이나 부존재를 증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흠의 철학의 회의론적 정신에 맞지 않는다. 흠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필연적 연결의 관념의 정체, 그리고 필연적 연결의 관념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귀납적 추론의 관계를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다.

우리가 이렇게 흠을 이해한다면 흠과 흠주의자들 사이에 분명한 간극이 들어난다. 흠과는 달리 오늘날의 흠주의자들은 NNC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앞 절에서의 논증이 옳다면 NNC의 수용 때문에 흠주의는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게 된다. 바로 이 차이가 흠의 이론이 경험론 친화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흠적 이론들은 경험론 친화적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흠은 경험론적 원리를 고수하려 했기 때문에 형이상학적 논쟁에 끼어들지 않고 회의주의적 자세를 유지했다. 앞서 검토한 바 있듯이 햄펠은 흠의 이런 자세를 계승하고

자 노력했으며 일체의 형이상학적 논의를 자신의 이론에서 배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결국 형이상학 없는 설명 이론은 신화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오늘날의 흄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형이상학적 중립성을 포기하면서도 여전히 햄펠의 경험주의적 정신을 계승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햄펠이 고수했던 형이상학적 중립성이 포기되는 순간 경험주의 친화성은 사라진다. 흄적 수반 논제, 특히 HSE에 기반한 설명 이론이 경험론 친화적이라는 생각은 신화에 가깝다.

참고문헌

- 이재호 (2013) “흠적 설명이론들, 그리고 이들의 형이상학적 전제”, 『철학사상』 49권, pp. 207-236.
- 이재호 (2014) “아리스토텔레스, 뒤햄, 밀, 그리고 설명에 관한 네 번째 길”, 『철학사상』 53권, pp. 165-202
- 이재호 (2020) “기술적 법칙 이론과 존재론적 경제성 논증” 『철학적 분석』 43권, pp. 1-31
- Armstrong, D. M. (1983). *What is a law of na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rd, A. (2007) *Nature's Metaphysics: Laws and Properties*, Oxford University Press.
- BonJour, L. (1998) *In defense of pure reason : a rationalist account of a priori justifi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rroll, J. W. (1994) *Laws of na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almers, D. J. (2012) *Constructing the World*, Oxford.
- Ellis, B. D. (2001) *Scientific essenti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eeland, C. A. (1991) “Accidental Causes and Real Explanations”, In L. Judson (ed.), *Aristotle's Physics : a collection of essays*, Oxford University Press.
- Hempel, C. a. P. O. (1948) “Studies in the Logic of Explanation” *Philosophy of Science*, 15, pp. 135-175.
- Hume, D., Selby-Bigge, L. A., & Nidditch, P. H. (1978) *A treatise of human nature*, 2d ed., Oxford University Press.
- Kim, J. (1999) “Hempel, explanation, metaphysics” *Philosophical Studies*, 94(1-2), pp. 1-20.
- Kitcher, P. (1989) “Explanatory Unification and the Causal

- Structure of the World” In P. Kitcher & W. C. Salmon (ed.), *Scientific explanation* (pp. 410-505).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Ladyman, J. (2002) *Understanding philosophy of science*, Routledge.
- Ladyman, J., Douven, I., Horsten, L., & Fraassen, B. V. (1997) “A defence of Van Fraassen's critique of abductive inference: Reply to Psillos”, *Philosophical Quarterly*, 47(188), pp. 305-321.
- Lee, J (draft) “The Intelligibility of Necessary Connection and Conceivability”
- Lewis, D. (1973) *Counterfactuals*, Oxford: Blackwell.
- Lewis, D. (1983) “New Work for a Theory of Universals”,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61(4), pp. 343-377.
- Lewis, D. (1986a) “Causal Explanation” In *Philosophical Papers* Vol. II, pp. 214-240,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D. (1986b) *On the plurality of worlds*, Blackwell.
- Lewis, D. (1986c) *Philosophical papers (Vol. 2)*, Oxford University Press.
- Lewis, D. (2009) “Ramseyan Humility”, In D. Braddon-Mitchell & R. Nola (eds.), *Conceptual Analysis and Philosophical Naturalism* pp. 203-222. MIT Press.
- Mill, J. S. (1963) *A System of Logic*,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Orenstein, A. (2002) *W. v. quin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sillos, S. (2002) *Causation and explanation*,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 Quine, W. V. (1951) “Two Dogmas of Empiricism” *Philosophical Review* 60(1), pp. 20-43.
- Quine, W. V. (1999) *On What There Is*, In J. Kim & E. Sosa

- (eds.), *Metaphysics - An Anthology*, pp. 4-12, Blackwell.
- Railton, P. (1989) "Explanation and Metaphysical Controversy" in P. Kitcher & W. C. Salmon (eds.), *Scientific explanation* pp. 220-252,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Ruben, D.-H. (1990) *Explaining explanation*, Routledge.
- Russell, B. (1990) *The problems of philosophy*, Hackett Pub. Co.
- Salmon, W. C. (1984) *Scientific explanation and the causal structure of the worl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lmon, W. C. (1989) "Four Decades of Scientific Explanation", in P. Kitcher & W. C. Salmon (eds.), *Scientific explanation*, pp. 3-219,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hoemaker, S. (1980) "Causality and Properties" in R. Taylor & P. Van Inwagen (eds.), *Time and cause : essays presented to Richard Taylor*, pp. 109-135, Reidel Pub. Co.
- Strevens, M. (2004) "Bayesian Confirmation Theory: Inductive Logic, or Mere Inductive Framework?", *Synthese*, 141, pp. 365-379.

중앙대학교 철학과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Philosophy

jaeho.jaeho@gmail.com

Necessary Connection and Empiricism

Jaeho Lee

In this paper, I challenge the widespread idea that Humean theories concerning laws, causation, and explanation are more empiricism-friendly than anti-Humean theories. According to my argument, if we use a very strong criterion of empiricism affinity, neither Humean theories nor anti-Humean theories are empiricism-friendly to the same degree, whereas if we use a sufficiently generous criterion, anti-Humean theories are more empiricism-friendly than Humean theories. On this basis, I argue that rational empiricists should prefer anti-Humean theories over Humean theories.

Key Words: Necessary connection, Empiricism, Humeanism, Anti-Humeanism